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3년 3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전월대비 2.1% 감소

○ 2013년 3월 생산은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5.9%), 의료정밀과 학(12.1%), 화학제품(2.0%)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0.0%), 기계장비(-8.4%), 영상음향통신(-17.8%)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3.0% 감소(전월대비 2.5%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5.0%), 숙박·음식점업(-1.5%), 예술·스포츠·여가(-1.8%)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3.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1.9%), 도소매(0.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7% 증가(전월대비 1.0% 감소)함.

○ 2013년 3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9.2%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0.3%)에서 감소하였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7.7%), 승용차 등 내구재(0.8%)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1.7% 증가(전월대비 1.4% 증가)함.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9.2% 감소(전월대비 6.6%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전월대비 3.0%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신규주택, 연구소, 토지 조성 등에서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24.1% 감소함.

- 2013년 3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4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대지수, 수출입물가 비율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 비율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3년 1/4분기 생산과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1%, 0.2% 상승, 투자는 14.4% 감소

- 2013년 1/4분기 생산은 제조업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1% 증가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등에서는 줄어 전년동기대비 1.7% 감소(전분기대비 1.9%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7% 증가(전분기대비 0.2% 증가)함.
- 2013년 1/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전년동기대비 0.2% 증가, 투자는 14.4%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에서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및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에서는 늘어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전분기대비 1.2% 감소)함.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등에서는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4.4% 감소(전분기대비 3.3% 감소)함.

◆ 2013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2% 상승(생활물가지수 0.7% 상승)

- 2013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2010년=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1%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하여 2012년 11월의 1.6% 상승 이후 6개월 연속 1%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1.8%), 교통(-1.5%), 통신(-0.1%) 부문은 하락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3.8%), 의류 및 신발(2.6%), 주류 및 판매(1.7%), 음식 및 숙박(1.6%), 교육(1.6%)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3년 4월 생활물가지수는 106.7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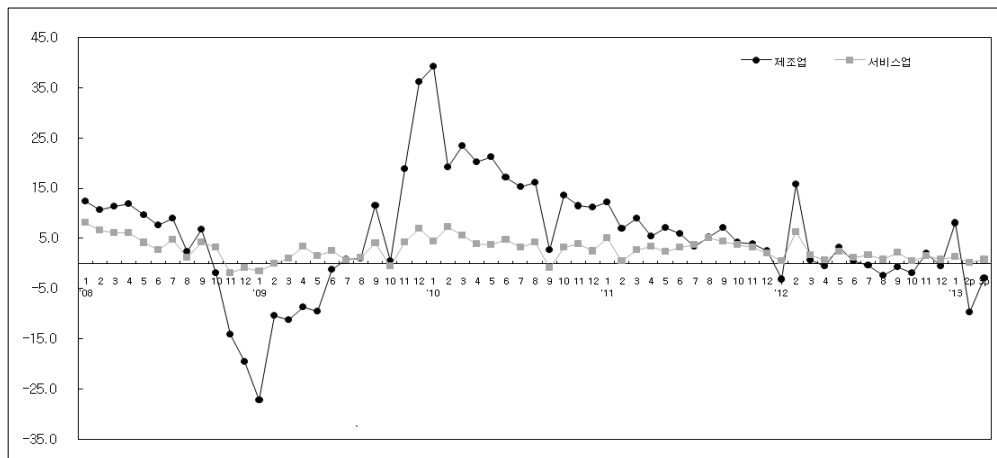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0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3월	1/4	3월p	
생산	광공업 생산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5.3	-1.7	-3.0(-2.6)
	제조업 생산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5.7	-1.7	-3.0(-2.5)
	출하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13.8	-2.1	-2.6(-1.8)
	내수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11.8	-2.6	-3.1(-2.8)
	수출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6.3	-1.5	-2.0(-0.7)
	서비스업생산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6.2	0.7	0.7(-1.0)
소비 소비재 판매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5.5	0.2	1.7(1.4)	
투자 설비투자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27.3	-14.4	-9.2(-6.6)	
물가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3.0	2.4	1.6	1.7	2.2	2.5	1.4	1.2(-0.1)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3년 4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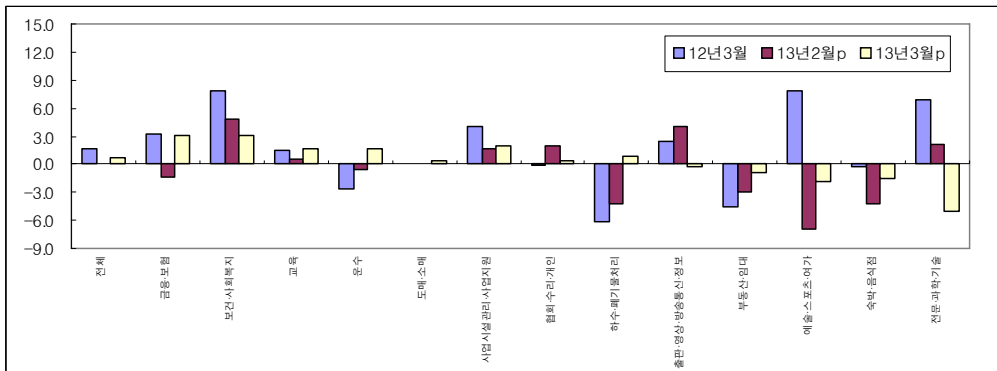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2.4), 『2013년 3월 및 1/4 분기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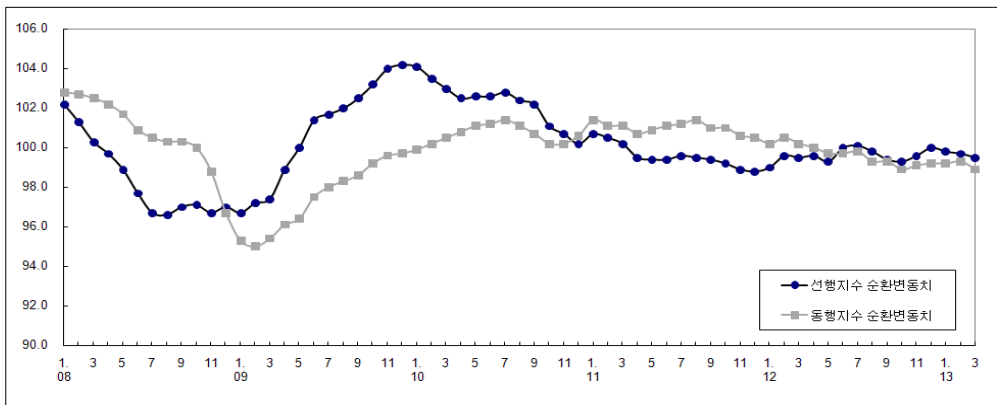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취업자는 증가, 참가율은 소폭 하락

- 2013년 4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9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5천 명(1.1%) 증가
 -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15,088천 명으로 143천 명(1.0%)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40천 명으로 132천 명(1.2%) 증가하였음.
- 2013년 4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3.5%)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50.5%)은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그림 4 좌측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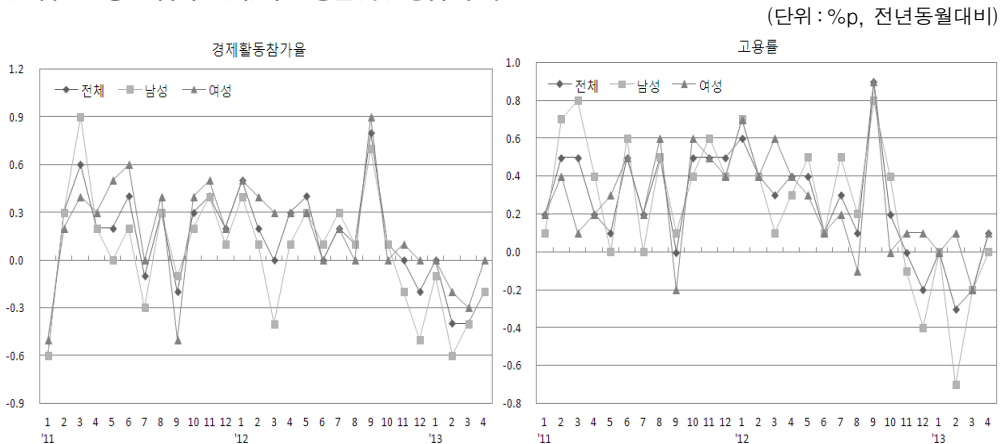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3월	4월	
경제활동인구	25,202 (1.6)	24,873 (1.6)	25,844 (1.6)	25,653 (1.6)	25,760 (1.9)	25,526 (1.3)	25,091 (0.9)	25,397 (0.7)	25,928 (1.1)	
참가율	61.1	60.1	62.3	61.9	61.8	61.1	59.9	60.5	61.7	
취업자	24,462 (2.0)	23,927 (2.0)	25,003 (1.8)	24,758 (1.9)	24,989 (2.1)	24,804 (1.4)	24,184 (1.1)	24,514 (1.0)	25,103 (1.4)	
고용률	59.4	57.8	60.2	59.7	60.0	59.4	57.7	58.4	59.8	
실업자	740	947	841	895	770	722	907	883	825	
실업률	2.9	3.8	3.3	3.5	3.0	2.8	3.6	3.5	3.2	
비경제활동인구	16,014 (0.3)	16,495 (0.6)	15,669 (0.7)	15,805 (0.6)	15,904 (0.4)	16,258 (1.5)	16,831 (2.0)	16,564 (2.2)	16,074 (1.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3. 5), 『2013년 4월 고용동향』.

- 2013년 4월 중 고용률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이고, 여성의 고용률은 49.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그림 4 우측 참조)
- 2013년 4월 중 취업자는 25,1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5천 명(1.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9천 명(1.3%)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5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6천 명(1.5%)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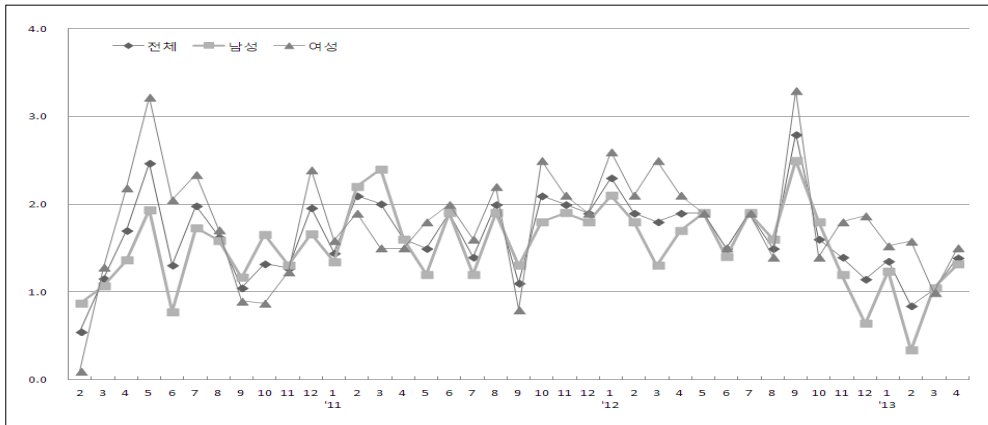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3년 4월 중 실업자는 8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천 명(7.8%)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남성 실업자는 50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천 명(-8.4%) 감소, 여성 실업자는 32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 명(-6.9%) 감소
 - 실업률은 남성이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여성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2013년 4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7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9천 명(1.7%)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0천 명(2.3%)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6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9천 명(1.4%)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천 명(5.1%) 증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375천 명으로 164천 명(3.9%) 증가하였음.
 - 2013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5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 감소함.

◆ 제조업 증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감소

- 2013년 4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65천 명, 4.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88천 명, 2.1%), 전기·운수·통신·금융업(88천 명, 3.0%)

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22천 명, -1.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7천 명, -1.2%), 건설업(-10천 명, -0.5%)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전 산업	24,462 (2.0)	23,927 (2.0)	25,003 (1.8)	24,758 (1.9)	24,989 (2.1)	24,804 (1.4)	24,184 (1.1)	24,514 (1.0)	25,103 (1.4)
농림어업	1,521 (-1.5)	1,176 (-2.6)	1,713 (-1.4)	1,613 (-1.8)	1,706 (0.1)	1,518 (-0.2)	1,167 (-0.7)	1,368 (0.3)	1,591 (-1.3)
제조업	4,056 (-1.8)	4,037 (-2.5)	4,061 (-1.6)	4,027 (-2.0)	4,126 (2.1)	4,196 (3.5)	4,156 (3.0)	4,141 (3.1)	4,192 (4.1)
건설업	1,832 (4.0)	1,721 (4.8)	1,807 (1.9)	1,787 (3.0)	1,772 (1.0)	1,792 (-2.2)	1,656 (-3.7)	1,693 (-2.9)	1,778 (-0.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42 (1.8)	5,571 (1.8)	5,596 (2.6)	5,582 (2.5)	5,610 (2.1)	5,603 (1.1)	5,534 (-0.7)	5,453 (-1.4)	5,515 (-1.2)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486 (3.1)	8,398 (3.7)	8,820 (3.4)	8,748 (3.7)	8,772 (3.5)	8,682 (2.3)	8,656 (3.1)	8,834 (3.0)	8,936 (2.1)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11 (5.5)	3,011 (4.5)	2,991 (2.0)	2,986 (2.4)	2,990 (-0.4)	2,998 (-0.4)	2,999 (-0.4)	3,009 (-0.4)	3,074 (3.0)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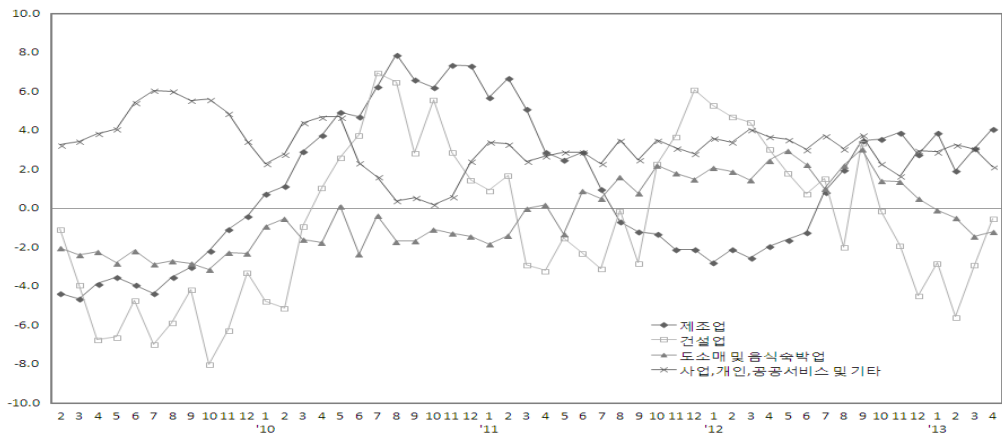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3. 5), 「2013년 4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대폭 증가, 비임금근로자 감소

- 2013년 4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5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0천 명(1.7%)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8,1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6천 명(2.6%) 증가하였음.
 -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616천 명으로 659천 명(6.0%)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636천 명으로 9천 명(0.6%)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892천 명으로 203천 명(4.0%) 감소하였음.
- 2013년 4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3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1.0%)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479천 명으로 383천 명(1.8%) 증가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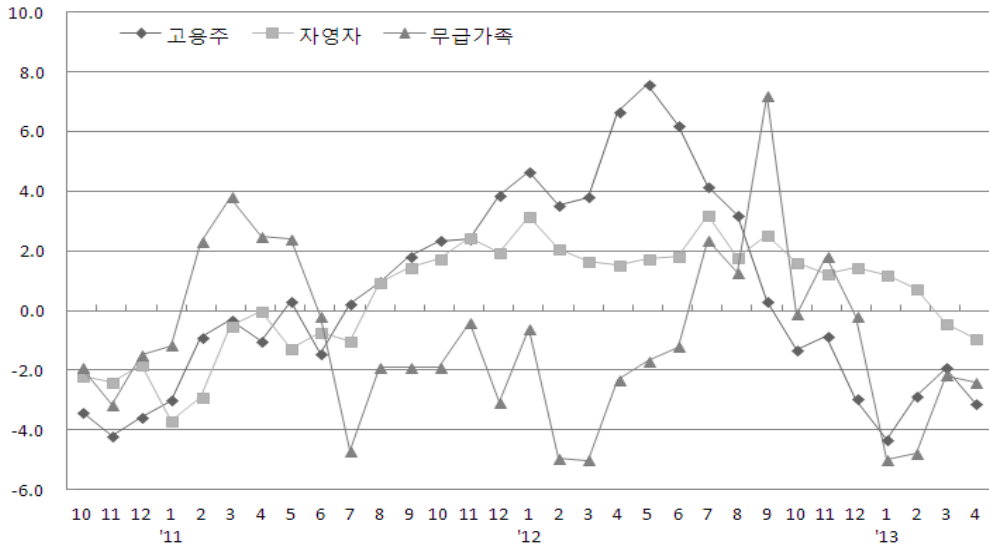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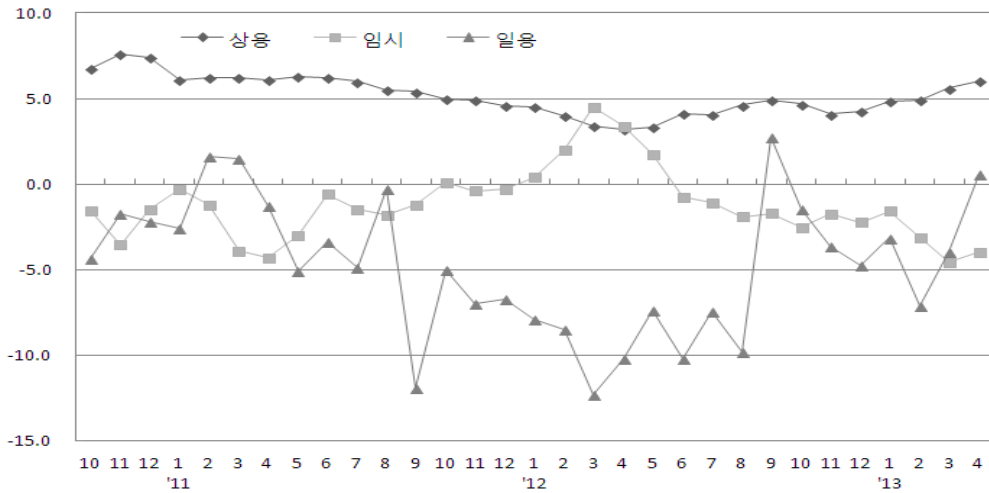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3월	4월
전 체	24,462 (2.0)	23,927 (2.0)	25,003 (1.8)	24,758 (1.9)	24,989 (2.1)	24,804 (1.4)	24,184 (1.1)	24,514 (1.0)	25,103 (1.4)
비임금근로자	6,878 (1.5)	6,650 (1.6)	7,154 (2.1)	7,079 (1.9)	7,154 (2.7)	6,917 (0.6)	6,578 (-1.1)	6,771 (-1.1)	6,959 (-1.7)
자영업주	5,639 (2.3)	5,548 (2.8)	5,830 (3.1)	5,805 (2.9)	5,823 (2.5)	5,672 (0.6)	5,520 (-0.5)	5,631 (-0.8)	5,716 (-1.5)
무급가족종사자	1,239 (-2.0)	1,102 (-3.6)	1,324 (-1.7)	1,274 (-2.3)	1,331 (3.6)	1,245 (0.5)	1,059 (-3.9)	1,140 (-2.2)	1,243 (-2.4)
임금근로자	17,585 (2.2)	17,277 (2.1)	17,849 (1.6)	17,679 (1.9)	17,835 (1.8)	17,887 (1.7)	17,606 (1.9)	17,743 (1.8)	18,145 (2.6)
상용근로자	10,820 (4.8)	10,825 (4.0)	11,059 (3.5)	10,957 (3.2)	11,216 (4.5)	11,288 (4.3)	11,379 (5.1)	11,510 (5.6)	11,616 (6.0)
임시근로자	5,042 (-0.2)	4,914 (2.3)	5,114 (1.4)	5,095 (3.4)	4,992 (-1.6)	4,933 (-2.2)	4,762 (-3.1)	4,769 (-4.6)	4,892 (-4.0)
일용근로자	1,723 (-6.3)	1,538 (-9.6)	1,675 (-9.3)	1,627 (-10.2)	1,627 (-5.2)	1,666 (-3.3)	1,465 (-4.8)	1,465 (-4.0)	1,636 (0.6)
36시간 미만	3,217 (4.1)	3,313 (2.1)	3,284 (2.3)	3,367 (3.6)	4,722 (-44.2)	3,219 (0.0)	5,563 (67.9)	3,354 (0.7)	3,333 (-1.0)
36시간 이상	20,937 (1.5)	20,081 (1.7)	21,425 (1.7)	21,096 (1.5)	19,770 (28.2)	21,271 (1.6)	18,099 (-9.9)	20,848 (1.2)	21,479 (1.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3. 5), 『2013년 4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위) 및 비임금근로자(아래)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40대 제외 전 연령 실업률 감소

○ 2013년 4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8.4%, -0.1%p), 30대(3.1%, -0.2%p), 50대(1.9%, -0.4%p), 60세 이상(1.3%, -0.1%p)에서 감소하였고, 40대(2.2, 0.1%p)에서는 증가함.

－ 교육수준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1.9%, -0.6%p), 고졸(3.4%, -0.3%p), 대졸 이상(3.6%, -0.2%p) 등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

○ 2013년 4월 중 전체 실업자 825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73천 명으로 72천 명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전 체	740 (2.9)	947 (3.8)	841 (3.3)	895 (3.5)	770 (3.0)	722 (2.8)	907 (3.6)	883 (3.5)	825 (3.2)
15~29세	292 (7.1)	346 (8.2)	341 (8.1)	357 (8.5)	283 (6.8)	284 (7.0)	343 (8.4)	346 (8.6)	340 (8.4)
30~39세	171 (2.9)	190 (3.2)	188 (3.2)	199 (3.3)	166 (2.8)	162 (2.7)	195 (3.3)	187 (3.2)	182 (3.1)
40~49세	131 (1.9)	164 (2.4)	135 (2.0)	141 (2.1)	133 (2.0)	122 (1.8)	143 (2.1)	157 (2.3)	149 (2.2)
50~59세	94 (1.8)	124 (2.3)	112 (2.0)	125 (2.3)	123 (2.2)	102 (1.8)	127 (2.3)	122 (2.2)	109 (1.9)
60세 이상	53 (1.8)	124 (4.4)	66 (2.0)	74 (2.3)	65 (1.9)	52 (1.6)	99 (3.4)	72 (2.3)	45 (1.3)
중졸 이하	108 (2.1)	187 (4.0)	112 (2.2)	127 (2.5)	106 (2.1)	98 (2.0)	148 (3.3)	113 (2.4)	94 (1.9)
고졸	349 (3.5)	408 (4.1)	356 (3.5)	370 (3.7)	350 (3.4)	321 (3.2)	367 (3.7)	349 (3.5)	340 (3.4)
대졸 이상	284 (2.8)	352 (3.4)	373 (3.5)	398 (3.8)	314 (3.0)	303 (2.9)	392 (3.7)	421 (3.9)	391 (3.6)
취업무경험 실업자	44	58	48	50	36	39	61	60	52
취업유경험 실업자	696	889	793	846	734	683	845	823	773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3. 5), 『2013년 4월 고용동향』.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3년 2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5.5% 상승

- 2013년 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3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884천 원) 15.5% 상승함.
 - 2013년 2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특별급여의 급격한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6.1% 상승한 3,524천 원을 기록함.
 - ※ 설날효과(2013년 설날은 2월, 2012년 설날은 1월)로 인해 특별상여금 지급일이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하여 임금총액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해 2,536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85.3% 상승하여 819천 원을 기록한 반면,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7% 하락하여 169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한 1,32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3년 1~2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49천 원으로 전년동누계(3,137천 원) 대비 3.6%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2년 1~2월 누계 대비 3.8% 상승한 3,434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2년 1~2월 누계 대비 4.6%, 초과급여는 2.0%, 특별급여는 1.4%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2년 1~2월 누계 대비 5.6% 상승한 1,390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3년 2월 실질임금은 13.8% 상승함.
 - 2013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3.8% 상승함 (그림 8 참조).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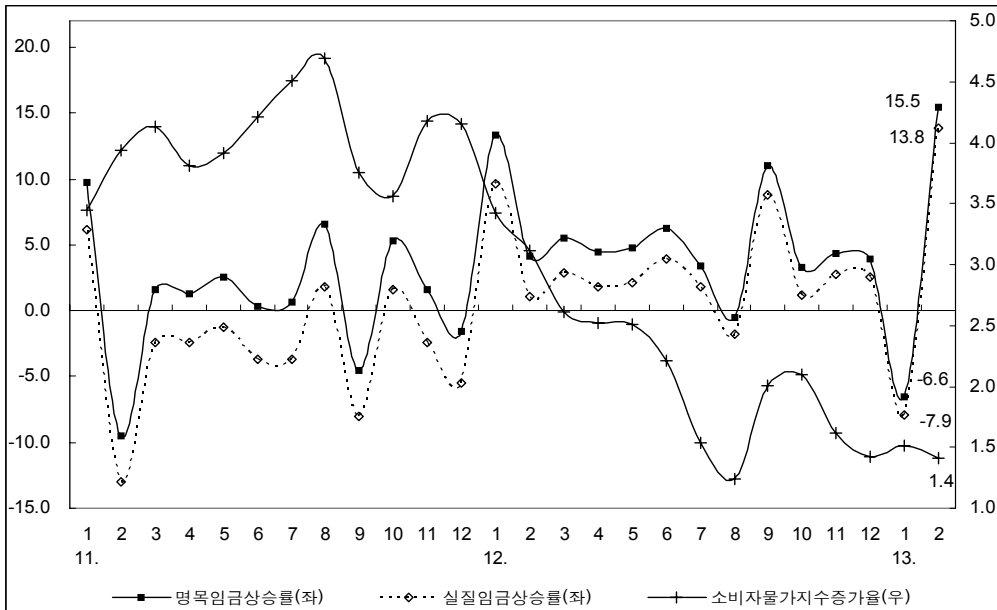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100.0)

	2010	2011	2012	2013				
				1~2월 누계	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16 (6.8)	2,844 (1.0)	2,995 (5.3)	3,137 (8.9)	2,884 (4.2)	3,249 (3.6)	3,330 (15.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47 (6.4)	3,019 (-0.9)	3,178 (5.3)	3,307 (8.8)	3,036 (4.1)	3,524 (16.1)	
	정액급여	2,234 (4.5)	2,341 (4.8)	2,470 (5.5)	2,439 (6.0)	2,422 (5.7)	2,536 (4.7)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81 (1.0)	169 (3.7)	172 (5.8)	173 (2.0)	169 (-1.7)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527 (5.8)	699 (21.6)	442 (-4.2)	709 (1.4)	819 (85.3)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56 (-1.6)	1,215 (15.1)	1,293 (6.4)	1,317 (14.2)	1,293 (13.1)	1,390 (5.6)	1,329 (2.8)	
소비자물가지수	100.0 (2.9)	104.0 (4.0)	106.3 (2.2)	105.9 (3.3)	106.1 (3.1)	107.5 (1.5)	107.6 (1.4)	
실질임금증가율	3.8	-2.9	3.1	5.5	1.0	2.1	13.8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2월 명목임금 증가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크게 증가함.
- 2013년 1~2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013년 1~2월 누계 실질임금 증가율은 2.1% 상승함.

◆ 2013년 2월 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상승

- 특별급여 증가의 영향으로 2013년 2월 기준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3년 2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제조업(23.0%), 금융 및 보험업(20.0%), 운수업(19.0%) 등 대체로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크게 증가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고,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2월 누계	2월	1~2월 누계	2월
전 산업	2,844 (1.0)	2,995 (5.3)	3,137 (8.9)	2,884 (4.2)	3,249 (3.6)	3,330 (15.5)
광업	3,309 (10.3)	3,470 (4.9)	3,409 (7.4)	2,966 (4.9)	3,694 (8.4)	3,533 (19.1)
제조업	3,034 (1.6)	3,221 (6.1)	3,456 (12.2)	2,999 (3.3)	3,686 (6.7)	3,689 (23.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82 (0.5)	5,388 (-1.7)	4,689 (-0.6)	4,633 (-1.2)	4,721 (0.7)	5,006 (8.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88 (1.9)	2,654 (6.7)	2,615 (7.2)	2,444 (3.4)	2,734 (4.6)	2,749 (12.5)
건설업	2,181 (12.2)	2,273 (4.2)	2,377 (7.2)	2,271 (6.3)	2,518 (5.9)	2,551 (12.3)
도매 및 소매업	2,942 (6.3)	3,122 (6.1)	3,217 (10.8)	3,036 (12.2)	3,226 (0.3)	3,312 (9.1)
운수업	2,393 (0.5)	2,589 (8.2)	2,565 (12.1)	2,499 (7.9)	2,745 (7.0)	2,974 (19.0)
숙박 및 음식점업	1,653 (13.0)	1,738 (5.2)	1,732 (5.2)	1,682 (6.3)	1,758 (1.5)	1,775 (5.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692 (9.1)	3,851 (4.3)	4,020 (8.0)	3,810 (4.6)	4,046 (0.6)	4,418 (16.0)
금융 및 보험업	4,771 (1.9)	4,988 (4.6)	5,343 (5.5)	4,892 (1.3)	5,531 (3.5)	5,871 (2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7 (2.6)	2,194 (8.8)	2,242 (10.1)	2,137 (9.3)	2,245 (0.1)	2,263 (5.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70 (-2.2)	4,112 (6.3)	4,157 (10.8)	3,942 (4.2)	4,149 (-0.2)	4,406 (11.8)
사업서비스업	1,700 (-8.0)	1,789 (5.3)	1,798 (6.8)	1,767 (5.7)	1,849 (2.9)	1,864 (5.5)
교육서비스업	2,985 (-5.4)	3,123 (4.6)	3,501 (5.9)	3,145 (0.2)	3,692 (5.5)	3,654 (1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90 (-4.0)	2,608 (4.7)	2,671 (7.0)	2,558 (4.3)	2,709 (1.4)	2,728 (6.6)
여가관련서비스업	2,130 (1.1)	2,211 (3.8)	2,184 (0.1)	2,001 (-5.2)	2,377 (8.8)	2,354 (17.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85 (3.9)	2,228 (2.0)	2,325 (4.6)	2,167 (-0.8)	2,316 (-0.4)	2,403 (10.9)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1~2월 누계 기준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2013년 1~2월 누계 기준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여가관련 서비스업 (8.8%)임.
 - 특히 광업(8.4%), 운수업(7.0%), 제조업(6.7%), 건설업(5.9%) 등에서 두드러짐.

◆ 2013년 2월 사업체규모별 전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상승

- 2013년 2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3년 2월 기준 3,05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하였고 이는 설날효과인 특별급여(84.3%) 증가의 영향임.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3년 2월 상용임금총액은 5,205천 원으로 2012년 2월 대비 24.2% 상승하였으며, 이 역시 특별급여(87.2%) 증가의 영향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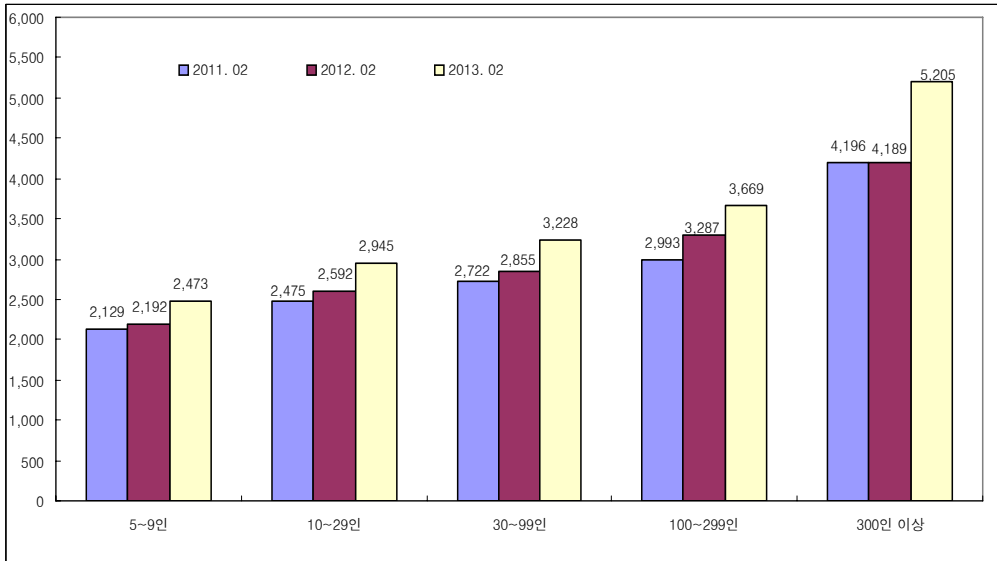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2월 누계		2월	
				1~2월 누계	2월	1~2월 누계	2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19(-0.9)	3,178(5.3)	3,307(8.8)	3,036(4.1)	3,434(3.8)	3,524(16.1)
	정액급여	2,341(4.8)	2,470(5.5)	2,439(6.0)	2,422(5.7)	2,552(4.6)	2,536(4.7)
	초과급여	179(-8.4)	181(1.0)	169(3.7)	172(5.8)	173(2.0)	169(-1.7)
	특별급여	498(-19.3)	527(5.8)	699(21.6)	442(-4.2)	709(1.4)	819(85.3)
	비상용임금총액	1,215(15.1)	1,293(6.4)	1,317(14.2)	1,293(13.1)	1,390(5.6)	1,329(2.8)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75(-0.9)	2,834(5.9)	2,872(7.6)	2,711(5.0)	2,962(3.2)	3,055(12.7)
	정액급여	2,204(5.9)	2,333(5.9)	2,300(6.3)	2,285(5.8)	2,407(4.6)	2,393(4.8)
	초과급여	150(-14.5)	156(3.5)	143(3.1)	145(5.5)	146(1.7)	143(-1.8)
	특별급여	321(-27.3)	345(7.7)	428(16.7)	281(-1.2)	410(-4.3)	518(84.3)
	비상용임금총액	1,216(14.8)	1,301(7.0)	1,319(15.1)	1,293(13.7)	1,405(6.5)	1,339(3.6)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73(-0.4)	4,424(3.5)	4,847(8.8)	4,189(-0.2)	5,113(5.5)	5,205(24.2)
	정액급여	2,842(2.3)	2,965(4.3)	2,930(3.6)	2,911(3.8)	3,070(4.8)	3,046(4.7)
	초과급여	286(6.7)	275(-3.9)	261(1.7)	266(3.7)	269(2.9)	262(-1.2)
	특별급여	1,146(-8.0)	1,185(3.4)	1,656(20.7)	1,013(-10.8)	1,774(7.1)	1,897(87.2)
	비상용임금총액	1,208(17.8)	1,209(0.1)	1,284(3.9)	1,289(5.8)	1,222(-4.8)	1,212(-5.9)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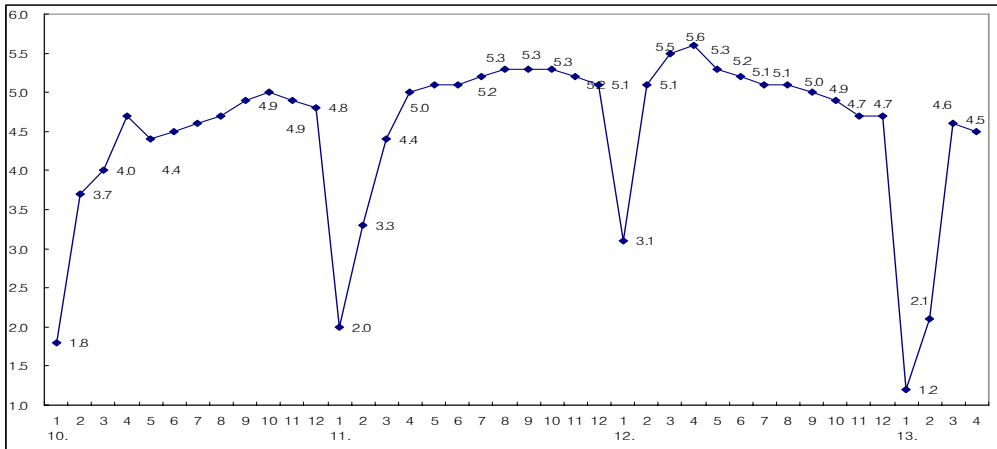
- 2013년 1~2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3.2%)은 정액급여(4.6%)와 초과급여(1.7%)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특별급여는 2013년 1~2월 누계 대비 4.3% 하락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5.5%)은 정액급여(4.8%), 초과급여(2.9%), 특별급여(7.1%) 모두 플러스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함.

◆ 2013년 4월 협약임금 인상률 4.5%

- 2013년 4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5%로 2012년 4월 인상률(5.7%)에 비해 1.2%p 하락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3년 2월 근로시간 9.5% 감소

- 2013년 2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함.
 - 2013년 2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59.9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6.7시간)에 비해 16.8시간(-9.5%) 감소함(표 9 참조).
- 2013년 1~2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누계대비 1.3% 감소함.
 - 2013년 1~2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1.3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누계(173.5시간)에 비해 2.2시간(-1.3%) 감소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2월 누계		2월	
			1~2월 누계	2월	1~2월 누계	2월
전체 근로시간	176.3 (-0.2)	174.3(-1.1)	173.5(4.5)	176.7(14.9)	171.3(-1.3)	159.9(-9.5)
상용총근로시간	182.1 (-1.4)	179.9(-1.2)	177.8(4.3)	181.5(15.5)	175.3(-1.4)	163.6(-9.9)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5(0.1)	167.2(-0.8)	165.4(4.7)	168.9(16.6)	163.6(-1.1)	152.4(-9.8)
상용초과근로시간	13.6(-17.1)	12.8(-5.9)	12.5(-0.8)	12.6(1.6)	11.7(-6.4)	11.2(-11.1)
비상용근로시간	122.5(6.2)	122.3(-0.2)	127.0(6.5)	125.7(8.8)	131.2(3.3)	122.2(-2.8)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2월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설날효과로 2013년 2월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3년 2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62.3시간, -1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8.8시간, -11.1%), 제조업(169.5시간, -10.3%) 등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 월력상 2013년 2월의 근로일수(19일)는 2012년 2월 대비 2일 감소함.
 - 2013년 2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78.6시간)이 가장 길었고, 여가관련서비스업(142.8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1	2012	2013			
			1~2월 누계		1~2월 누계	
			2월	2월	2월	2월
전 산업	176.3(-0.2)	174.3(-1.1)	173.5(4.5)	176.7(14.9)	171.3(-1.3)	159.9(-9.5)
광업	186.9(-0.6)	185.3(-0.9)	183.6(6.7)	186.3(17.2)	179.8(-2.1)	166.7(-10.5)
제조업	190.6(-0.8)	186.4(-2.2)	184.4(3.0)	188.9(14.2)	182.0(-1.3)	169.5(-10.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7.1(0.1)	175.5(-0.9)	175.6(4.2)	178.2(12.6)	174.0(-0.9)	171.0(-4.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6.2(-3.5)	184.8(-0.8)	182.1(4.7)	184.7(14.6)	178.9(-1.8)	166.9(-9.6)
건설업	153.9(5.3)	152.5(-0.9)	153.2(3.0)	153.9(11.0)	158.1(3.2)	147.5(-4.2)
도매 및 소매업	175.1(-1.2)	174.5(-0.3)	172.6(4.7)	175.6(16.1)	171.8(-0.5)	160.4(-8.7)
운수업	181.6(-1.6)	181.7(0.1)	180.3(6.0)	181.4(12.0)	174.1(-3.4)	165.3(-8.9)
숙박 및 음식점업	186.2(13.7)	186.6(0.2)	187.3(5.5)	190.0(12.8)	173.7(-7.3)	162.3(-14.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5(-1.0)	163.9(-0.4)	161.5(5.3)	165.0(18.6)	161.3(-0.1)	149.5(-9.4)
금융 및 보험업	163.6(-1.0)	163.4(-0.1)	163.0(7.4)	166.3(22.5)	162.7(-0.2)	151.0(-9.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4.2(-3.1)	193.4(-0.4)	194.5(3.6)	196.7(12.9)	189.9(-2.4)	178.6(-9.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2(-0.1)	165.3(-0.5)	163.9(6.2)	167.3(19.4)	160.7(-2.0)	148.8(-11.1)
사업서비스업	172.1(-4.4)	173.1(0.6)	172.6(8.6)	175.1(18.1)	169.9(-1.6)	158.7(-9.4)
교육서비스업	152.9(2.0)	151.1(-1.2)	152.4(7.1)	157.2(18.2)	152.7(0.2)	143.2(-8.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3.5(-1.7)	174.8(0.7)	172.4(5.1)	175.2(15.6)	170.2(-1.3)	159.7(-8.8)
여가관련서비스업	157.1(-1.0)	158.1(0.6)	152.8(3.6)	157.1(12.4)	153.0(0.1)	142.8(-9.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6(-0.2)	168.9(-2.7)	166.8(0.4)	169.1(9.4)	166.4(-0.2)	155.1(-8.3)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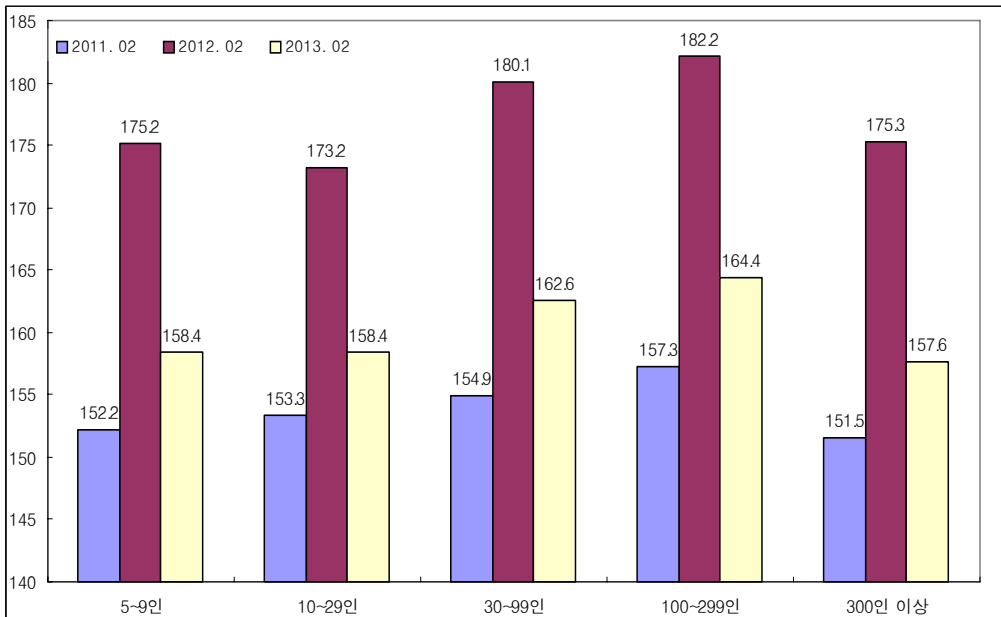
- 2013년 1~2월 누계 근로시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함.
 - 2013년 1~2월 누계 근로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173.7시간, -7.3%), 운수업(174.1,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189.9시간, -2.4%) 등에서 감소함.
 - 반면, 건설업(158.1시간, 3.2%), 교육서비스업(152.7시간, 0.2%), 여가관련서비스업(153.0시간, 0.1%) 등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3년 2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3년 2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5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6%, 10~2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5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5%, 30~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62.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7%,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64.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8%,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함(그림 11 참조).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2013년 1~2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역시 모든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3년 1~2월 누계 총근로시간은 168.7시간으로 전년동누계 대비 1.7%, 10~2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0.7시간으로 전년동누계 대비 0.2%, 30~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4.0시간으로 전년동누계 대비 1.5%,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5.8시간으로 전년동누계 대비 1.8%,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68.4시간으로 전년동누계 대비 1.7% 감소함.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 심화

-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에 관해 고용노동부와 재계,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지난 해 3월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시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임금 산정기간(1개월) 내에 지속적으로 지급된 경우만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 판결만 근거로 당장 행정지침을 바꾸기는 곤란하다”고 말함.
 -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연간 추가비용은 8조 6,663억 원이 늘어난다”며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일자리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반영 여부에 관한 집단소송을 검토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노사정이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실태와 문

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제의함.

- 또한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면서 법원 판례와 행정지침 사이 간극이 벌어져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법원 판례가 있고 개별 노동자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대화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 취지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함.
-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이라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강조함.

◆ 쌍용자동차, 주야 2교대 근무 재개

○ 쌍용자동차는 5월 13일 경기도 평택공장 조립3라인이 주야 2교대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힘.

- 1조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잔업 3시간 포함) 11시간 근무하고, 2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잔업 1.5시간 포함) 9.5시간 근무하게 됨.
- 이를 위해 복직자 중 330여 명이 주야 2교대제가 시행된 조립3라인에 배치됨.
- 회사 측은 “주야 2교대제의 시작은 회사와 노조가 힘을 합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함.
-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자는 물론 정리해고자들까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지난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 2인은 9일 건강악화로 철탑농성을 중단함.

- 이들은 “송전탑에서 내려오지만 쌍용자동차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함.
- 노조 측은 “사실상 아무런 조건 없이 철탑농성을 종료했다”며 “이제 회사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차례”라고 주장함.
-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우선되어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 적자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함.

- 이에 한 노동계 전문가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문제를 풀어야 할 회사와 기업노조 3자가 만나 현실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진주의료원 노사, 폐업을 둘러싼 갈등 지속**

- 진주의료원은 남은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10일 2차 퇴직공고를 내고 16일까지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 진주의료원 측은 “지난달부터 의료원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함.
 - 하지만 노조 측은 “협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진주 의료원을 폐업 상태로 몰아가려는 의구심을 든다”고 비판함.
-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직접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함.
 - 노조 측은 “병상수를 200병상으로 줄이고 11개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의사 20명, 일반직원 134명 등 154명이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진주의료원 직원의 특혜나 무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혁신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힘.
 - 또한 노조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실운영·부정비리에 대한 강력한 개혁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반드시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노조가 경영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겠지만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함.
- 경남도의회는 5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고, 심의는 다음 달 임시회로 보류함.
 - 이 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결의대회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며 “홍준표 지사는 폐업방침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함.

◆ **현대자동차 노사, 주말특근 일부 재개**

- 현대자동차는 “5월 25일부터 주요 완성차 공장의 주말특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울산 1공장, 울산 3공장, 아산공장을 제외한 울산 2공장, 울산 4공장, 울산 5공장이 주말특근을 재개함.
- 울산공장 내 엔진·변속기공장, 소재공장, 수출PDI공장, 전주공장 버스라인은 5월 11일 주말특근을 재개함.
- 현대자동차 측은 “장기간 특근 거부에 따른 회사의 실적 악화 우려와 임금손실 등 조합원들의 피로도를 인식한 각 공장 대의원 대표들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일부 공장을 중심으로 특근 재개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함.

◆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 사고를 둘러싼 논란**

-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월 10일 아르곤가스 누출에 따른 산소 결핍으로 근로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유족들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현대제철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관리감독 부재가 빚은 인재”라고 주장함.
 - 노동계는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 사업주는 재해예방 능력이 없어 실질적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지적함.
 - 이에 한 전문가는 “산업재해의 1차적 책임을 하청 사업주에게 묻고 원청은 이를 협조토록 하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며 “실제 작업장소에 대한 권한과 정보를 갖고 있는 원청에 1차적 책임을 지우고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14일 한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현대제철 수시근로감독에서 원청 및 하도급 업체에 안전수칙 이행을 강하게 당부한지 두 달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겠다”고 말함.

◆ **SK그룹, 계약직 5,800여 명 정규직 전환**

- SK그룹은 4월 30일 “그룹 내 각 계열사들이 2013년 말까지 계약직 직원 5,8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에프엔유신용정보와 SK플래닛의 자회사인 엠앤서비스에서 고객상담 직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4,300여 명이 포함됨.
 - SK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정규직 비율을 낮춰 2015년까지 그룹 내 계약직 비율을

3%까지 줄이기로 했다”며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복리후생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과 소속감이 높아지고 장기근속으로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7,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하다면 2014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 **청년유니언과 노년유니언,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인정**

- 청년유니언은 4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청년유니언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판례 취지와 다른 유사노조와의 형평성 문제, 청년유니언의 노동조합업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간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나 실업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언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음.
 - 청년유니언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적인 한계, 청년이라는 한계를 넘어 일자리 문제와 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한 전문가는 “청년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 조직적 기반마저 열악했는데 청년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촉발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노년유니언 또한 5월 2일 “4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았다”고 밝힘.
 - 노년유니언은 지난해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원 중에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13명의 노조원만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인정받음.
 - 노년유니언 관계자는 “노년 세대의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년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법률개선 및 노동환경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KLI]**

(박지은, 동향분석팀 연구원)